

아담 살, 순치제, 소현 세자:

아담을 바라보는 두 시선 사이에 있는 차이에 대해서

안재원*

【요약】

이 글은 『중국포교사』에 나타나는 예수회 신부 아담 살을 바라보는 청나라 순치제와 조선 소현 세자의 시선 사이에 있는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이다. 차이는 크게 세 가지 태도에서 두드러진다. 먼저, 아담 살을 대하는 태도에서, 순치제에게 아담은 훌륭한 신하에 불과한 반면, 세자와 아담은 군신(君臣) 관계가 아닌 친구 혹은 형제에 가까웠다. 다음으로, 천주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순치제에게 “천주의 법”은 신하의 덕이었다. “천주의 법”은 또한 유교나 불교의 가르침과 같은 심급에 있는 일종의 수신과 수양 지침이었다. 반면, 소현 세자에게 “천주의 법”은 유교나 불교의 가르침과 같은 심급에 있는 일련의 수양 지침이 아니었다. 아담의 보고에 따르면, 소현 세자는 수양 차원이 아닌 종교 차원에서 천주교를 대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와 학문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순치제가 서양 종교보다는 서양 학문을 중시했다면, 소현 세자는 서양 학문도 물론 중시했지만 서양 종교인 천주교를 더 중시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여기에, 이 글을 통해 나는 원천 사료의 가치를 지닌 소현 세자의 편지를 찾아내어 번역과 함께 소개하였다. 또한, 국가 공인을 받고서 중국에서 건립된 최초의 성당이 북경의 남당(南堂)이고, 착공은 1650년이고 완공은 1651년에 이뤄졌다는 것도 이 글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간략한 비교-분석만 보더라도, 『중국포교사』가 동서 교류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임이 틀림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포교사』를 위해 표준 정보가 아직 없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한다.

【주제어】 천주교, 예수회, 『중국포교사』, 아담 살, 순치제, 소현세자, 천주의 법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학진흥방안 인문학국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16)

I. 시작하는 말¹⁾

책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하자.

貴 C510 101, *Historica relatio de ortu et progressu fidei orthodoxae in regno Chinensi per missionarios Societatis Jesu ab anno 1581 usque ad annum 1669.* (=HRC)

이 책은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경성제국대학 시절에 독일에서 구입되었다. 책 제목은 조금 길다. 하지만 17세기 출판된 것치고는

-
- 1) 이 글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문명연구사업단의 문명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것이다. 심포지엄에서 많은 조언과 예리한 논평을 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시나브로” 공동 연구팀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이 글의 교정에 값진 논평과 조언을 해주신 서울대 중문과 김월희 교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심사를 맡아주신 세 분의 심사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다. 이 제안 가운데에서 예컨대, “소현세자가 순치제와는 달리 아담 살을 통해서 천주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다”는 근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보충할 것을 약속드린다. 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아직 소개되지 않은 라틴어 문헌들이 많고, 이 문헌들이 인쇄본이지만 대부분 필사본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비판정본 작업의 선행되어야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도로 답하고자 한다. 이어서, 국내의 선행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은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조사한 바로는 라틴어 원문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해서, 우선 라틴 원문을 소개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해서 라틴어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또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중요한 라틴 원문들을 많이 발견하였다. 어쨌면, 17세기를 중심으로 동서 문헌 교류사라는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 영역 설정이 가능할 정도로 문헌의 종류와 수(대략 1000종의 문헌이 라역(羅譯)되거나 한역(漢譯)되었다. 전자는 약 700종, 후자는 300종에 이른다)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문헌 조사와 엄밀한 문헌 고증 및 본격적인 문헌 비교가 요청된다. 해서 이에 대한 연구는 보다 체계적으로 천천히 서두르겠다는 말로 심사자 선생님들의 지적에 답하고자 한다.

나름 제목이 짧은 편이다. 『1581년에서부터 1669년까지 키나에서 그리스도교의 옳은 신앙을 포교하기 위해서 활동한 예수회 신부들에 대한 보고: 그 시작과 전개를 중심으로』(이하는『중국포교사』로 약칭하겠다)다. 책은 1672년에 오늘날 독일의 아우구스투스 한크비츠(Augustus Hanckwitz) 라티스보나이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저자는 아담 샬(Adam v. Schall,²⁾ 1592-1666)과 인토르체타(Intorcetta, 1626-1696)다. 참고로, 인토르체타는 시칠리아 출신으로 동양고전, 예컨대 『중용(中庸)』을 라역(羅譯)해서 서구에 소개한 예수회 신부다. 책은 청나라의 고위 관료 복장을 한 아담 샬의 초상화로 시작하고, 신성로마제국 황제였던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1세(Leopold I, 1640-1705)에게 헌정되었다. 출판과 보급 비용을 후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책이 신성로마제국 황제에게 헌정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로마 교황청은 물론, 유럽의 여러 왕실이 당시 중국에 대해 가졌던 관심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관심이 유럽에서 높아지고 있을 즈음, 유럽에 대한 중국의 관심도 못지않게 컸다. 이를 잘 보여주는 문헌이 『중국포교사: 1581-1669』다. 책의 목차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제1장은 키나³⁾에서 그리스도교 포교의 초기 상황과 예수회의 노력에

-
- 2) 아담 샬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 과학과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 들어와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Western Learning*” and *Christianity in China: The Contribution and Impact of Johann Adam Schall von Bell (1592-1666)*, Roman Malek, S.V.D. (ed.), in *Monumenta Serica Monograph Series Vol. XXXV/1-2* (Sankt Augustin, 1998)을 참조하시오. 이 자료는 아담 샬 탄생 400주년인 1992년에 개최된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51편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는 아쉽게도 아담 샬의 <중국포교사> 원문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글은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아담 샬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글도 국내 연구에서는 찾지 못했다.
- 3) 『중국포교사』는 어떤 때는 Cina로, 어떤 때는 China로 중국을 표기한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당시 발음이 어땠는지인데, 아마도 당시 예수회 선교사들은 Cina나 China를 한글로 표기하자면, “키나”일 것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또 다른 표기법인 Sina가 한글로 “시나”로 표기된 점에서 반증된다.

대해 보고한다.

제2장은 예수회 신부들이 키나의 천문 혹은 달력 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보고한다.

제3장은 예수회 신부들이 연력 개정 작업 중에 부딪혔던 반대와 고생에 대해서 기록한다. 또한, 학사 파울루스(아마도, 이지조)의 죽음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제4장은 천문 측정 방식의 개선과 이를 반대하는 여타의 동향에 대해서 보고한다.

제5장은 천주의 법이 왕실⁴⁾ 내부로 전파되고 있고 성공적이라 보고한다.

제6장은 키나 왕이 예수회 신부의 천문 측정 방식을 보고서 이를 인정했다고 보고한다.

제7장은 키나 왕이 키나에 유익한 여러 건설 사업의 책임자로 아담 샬을 임명했다고 기록한다.

제8장은 역모가 일어나 왕이 죽고, <명나라>⁵⁾ 왕권이 무너졌다 전한다.

제9장은 왕권을 찬탈하려는 자(아마도, 이자성의 난)가 타르타루스⁶⁾

- 4) 원문은 *aula regia*이다. *Aula Imperii*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왕실이 아니라 황실로 기록해주어야 한다. 인토르체타는 유럽 왕실의 격에 맞추어 중국의 왕실을 의도적으로 격하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중국의 황제와 로마의 교황 사이에서 오고 갔던 편지들에서 많이 발견된다. 예컨대, 중국의 황제를 로마의 교황에게는 황제(Imperator)가 아닌 왕(Rex)으로 낮추어 소개하는데, 이는 인토르체타가 번역 과정에서 부린 간지(奸智)라 하겠다.
- 5) <명나라>는 원문에는 없는 표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보충한 것이다.
- 6) “타르타루스”는 만주 지역을 뜻한다. “타르타루스”가 최초로 발견되는 텍스트는 『일리아스』 제8권 13행 이하이다. 이에 따르면, 이 곳은 거신(巨神)족인 티타네스 족을 가두는 지하 감옥이었다. 그런데, 만주 지역이 유럽인에 의해서 타르타루스라 불리기 시작한 시기는 12세기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당시에는 카스피해에서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유라시아 북부 지역 전체를 타르타루스라 칭했고, 이 명칭은 시베리아, 돌궐, 몽골, 만주 지역을 포괄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17세기에 오면 만주 지역을 한정하는 지명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작가들의 저술에 등장하는 타르타루스라는 명칭은 따라서 대개는 당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청나라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에서, 계몽주의 시대의 저술에 나타나는 타르타루스 지명 번역에 보다 섬세한 주

인에 의해 축출되었지만, 북경은 화염에 휩싸여 불타버렸다 전한다.

제10장은 타르타루스 인이 왕권을 이양 받았고 천문학에 관심을 보였다고 보고한다.

제11장은 아담 샬 신부가 수리(數理) 일반을 책임지는 관리로 임명되었음을 보고한다.

제12장은 키나의 통치자 타르타루스 왕족의 족보와 천문에 대해 키나인이 보인 관심과 열정을 소개하고, 코레아 왕⁷⁾(세자)이 천문에 대한 일과 천주의 법에 대해 심취해서 배웠다고 보고한다.

제13장은 아담 샬 신부가 키나의 고위 관료들과 왕실로부터 천문학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았으며 천주의 신앙을 고취시켰다고 보고한다.

제14장은 아담 샬 신부가 천문학을 소개하는 여러 뛰어난 서책들을 키나 왕에게 제출했다고 보고한다.

제15장은 키나 왕이 큰 호의를 가지고 아담 샬의 말을 경청했다고 기록한다.

제16장은 키나 왕이 천주의 법을 배우고 후원했다고 보고한다.

제17장은 키나 왕이 큰 성은을 내려 그리스도교의 확산을 후원했다고 전한다.

제18장은 성당이 공식적으로 봉헌되었고, 새 신자가 된 이들의 신실함과

의가 요청된다. 예컨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등장하는 타르타루스는 중국을 가리키에도, 코카스 산맥의 야만 종족으로 이해되도록 번역되어 있다.

- 7) 원문은 *Rex*로 번역하면 왕이다. 이도 마찬가지로 번역의 간지에 해당한다. 한 심사자 선생님의 지적대로, 이는 아담 샬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세자를 라틴어 *Princeps*로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시 서양 독자에게 오해를 주는 번역이다. 왜냐하면, *Princeps*는 영어의 prince에 해당하지만, 원래는 “제일시민”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다른 이유가 더 결정적이다. 즉, 아담 샬 신부가 로마의 교황에게 코레아의 왕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함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보고한다. 그런데, 그는 *Rex*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선교보다도 청나라의 고위 관료 생활에 더 치중했던 아담 샬 신부를 굽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있던 다른 신부들과 로마 교황청의 불만과 우려를 무마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열정에 대해 보고한다.

제19장은 성당 건축 중에 일어난 어떤 소년의 기적에 대해 전한다.

제20장은 그리스도의 은총이 만들어 낸 여타 다른 기적에 대해 보고한다.

제21장은 천문 체계를 바로잡는 중에 겪어야 했던 고초를 겪었지만, 유럽의 수리 방식이 승리했다고 보고한다.

제22장은 키나 왕이 죽고, 그의 후계자가 지명되었다고 보고한다.

제23장은 장례 일반에 대한 키나 인의 공통 예법에 대해서 보고한다.

제24장은 키나 왕의 장례 절차와 그의 후계자가 신의를 굳게 지키겠다는 맹세를 했다고 기록한다.

제25장은 키나의 왕이 아담 샬 신부, 그의 조상과 부모, 조부모를 칭송하고, 그의 가족들이 왕실의 성은을 대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다고 전한다.

* 1581년부터 1669년까지 벌여졌던 예수회 선교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다.

* 타르타루스 인이 통치하는 시기에서는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박해 시기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기록한다.

인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아담 샬이 서양의 천문학에 기반해 달력을 지어 순치제(順治帝, 재위 1643-1661)에게 바쳤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그 대가로 북경 도성 안에 천주당의 건축 허가를 받았고, 그 덕분에 성당을 지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두 사건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겠다. 어쨌든, 17세기에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17세기 동서 문헌의 교류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예컨대, 이 분야 연구의 대가라 할 수 있는 먼젤로(David E. Mungello)의 『진기한 나라, 중국: 예수회의 적응주의와 중국 학의 기원』과 같은 책이 2009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번역⁸⁾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17세기 동서 문헌의 교류 연구와 관련해서 핵심 문헌으로 간주되는 『중국포교사』의 원전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다루거나 소개한 논문은 적어도 국내 연구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구장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중국포교사』라틴어 원전을 발견하였다. 무척 흥미로웠고, 책을 읽던 중에 서양에서 온 예수회 신부, 특히 아담 샬 신부를 바라보는 동양의 통치자들의 시선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밝히는 것도 동서문헌 교류 연구에 있어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차이를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예수회 신부에 대해서는, 당시 중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⁸⁾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겠다.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다. 먼저, 청나라의 황제의 시선을 소개하겠다. 당시, 청나라의 황제가 아담 샬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아담 샬이 만난 사람 가운데에는 우리의 눈을 끄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바로, “코레아 렉스(Corea Rex)”다. 이는, 위의 목차에서 아담 샬이 “코레아 왕”을 만났다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이 “코레아 왕”에 대해 궁금해 할 독자가 있을 것이다. 이를 먼저 밝히면, 잘 알고 있듯이, 이 왕은 소현 세자(昭顯世子, 1612-1645)다. 흥미롭게도, 『중국포교사』는 라틴어로 옮겨진 소현 세자의 편지를 수록하고 있다. 해서, 아담 샬을 바라보는 세자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그의 편지도 소개하겠다.

8) 데이비드 E 먼젤로, 이향만, 장동진, 정인재 역, 『진기한 나라, 중국』(나남출판사, 2009)

9)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 양광선(楊光先, 1597-1669)이다. 그가 1665년에 출판한 『不得已』는 예수회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저술이다. 비교, 『진기한 나라, 중국』 155쪽 이하.

II. 아담 샬을 바라보는 순치제의 시선

『중국포교사』! 한마디로, 책의 요지는 서양 천문학이 동양 천문학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이는, 청나라 순치제가 1644년에 시헌력(時憲曆)을 반포하고 시행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순치제가 아담 샬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헌력을 채택하게 된 계기는 1644년 8월 초에 일어난 일식 때문이었다고 한다. 종래의 대통력(大統曆)과 아라비아의 회회력(回回曆)에 입각한 천문 계산법은 일식이 일어난 시기를 맞추지 못했지만, 아담 샬의 시헌력은 이를 정확히 계산해 냈기 때문에 순치제는 명나라 말기에 중국에 와서 서양역서인 <송정역서 崇禎曆書> 137권의 편찬에 참여했던 아담 샬에게 천문 역법의 개선을 명한다. 이에 아담 샬은 103권으로 다시 정리해 <신법서양역서 新法西洋曆書>의 서명으로 편찬했고, 이듬해인 1645년부터 “시헌력”을 완성해 순치제에게 바친다. 시헌력은 『상서(尙書)』의 “유성시헌(惟聖時憲)”에서 따온 표현이고 시헌력의 체계는 서양의 역법을 따랐지만,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아닌 튀코 브라헤(Tycho Brache, 1546-1601)의 수정 천동설에 기초한 지구 중심의 천문 체계를 기본 틀로 삼았다. 동양 역법과 서양 역법이 정면으로 맞붙었었는데, 결과는 서양 역법의 승리로 끝났다. 역법이 세시 풍속은 물론, 일상 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양의 시간 측정과 구분 방식이 이미 17세기에 동양에 들어왔고, 이미 그 시절부터 알게 모르게 동양인들의 일상사를 지배했다 하겠다. 이런 이유에서, 특히 동서 교류사의 관점에서 보면, 시헌력을 둘러싸고 동양과 서양의 학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주제라 하겠다. 하지만,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한 논의도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다. 또한, 서양 고대 헬레니즘 시대에 확립된 천문학 체계, 적어도 그 흔적이 17세기 이전의 중국의 천문 서적들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주제이기도 하다¹⁰⁾. 이런 저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서양 천문과 학문 일반에 대해 예수회 선교사들과 당시 천문을 관장하고 있던 중국 관료들과 벌인 논쟁과 대화를

전하고 있기에, 『중국포교사』가 학문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텍스트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¹¹⁾

결론적으로, 순치제는 아담 살의 시현력에 감동한다. 그는 아담의 공로를 크게 치하하고, 그 대가로 북경에, 그것도 도성의 가장 중요한 문인 선무문(宣武門) 바로 안쪽에 천주당을 짓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한다. 그 곳이 북경의 남당(南堂)이다. 남당의 건축 시기에 관해서 1655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국포교사』는 1650년에 착공해서 1651년에 완공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시현력을 만들어 준 대가로 천주교의 포교를 위한 성당을 공개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전거는 다음과 같다.

[원문]

Annis fere octoginta Societas in Regno Chinensi Christum annunciavit, nec tamen ullum templum palam aperuit, vel quia, quod Magnificentiae alicuius Basilicae extruendae sufficeret, ad manum non erat: vel quia libere non audebant rem tantam lege nondum late promulgata aggredi: subvereri etiam poterant Gentilium insolentiam, promiscue aliena subeuntium ac tali loco nullo prohibente indigna temere machinantium. Privato itaque sacello intra domesticos parietes exstructo, atque Ethnicis, cum aliquo delectu, illuc admissis, ut plurimum contenti res Divinas, solatio Christianorum, et incitamento Catechumenorum peragebant. Deo tandem dante, et Astronomiae studiis viam facientibus, postquam Tartari sceptrum tenere, occasione exustae urbis et dirutarum aedium, quae ad fabricam necessaria abunde praestiterunt, magna vi laterum ac lapidum et materiae facili pretio coempta, nulla quidem tum petita licentia, quod Tribunal rituum lege Regni hanc sibi reservatam aegre concessurum crederetur: sed sola autoritate audente, quam intra paucos annos instauratio Ephemeridum, et gratia novi Principis peperit, anno septimo Imperii,

10) 예를 들면, 헬레니즘 시대에 저술된 천문 서적들이 시리아어로 번역되었고, 이 번역은 다시 동황을 거쳐 한문으로 번역되어 중국 천문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문헌 고증이 요청된다.

11) 물론, 『중국포교사』는 서양인의 시각에서 논쟁을 정리되었음에도, 천문 현상에 대한 논쟁 자체에 대한 기술은 객관적인 편이다. 하지만, 이 책은 아직 믿을만한 표준 정보 작업도 되어 있지 않다. 해서 원전에 비판 정보 작업과 한국어로의 번역과 주해 작업이 시급히 요청되는 텍스트이다.

qui quinquagesimus fuit post sexcentimum millesium, datum templo initium est, Regulorum maxime et amicorum sumptibus insequenti anno perfectum.

Patebat area domui Patrum conjuncta atrium forte domiciliorum, quae ab exustis per latrones aedibus deserta persisterat, et vacans. Hanc quoniam interjacebat aedibus et Academiae, in qua Calendarii correctio desudabat, dono expetiit a Rege P. Adamus et impetravit: duarum aedium spatio, in Templi et adytorum atria designato, ac tertio pro DEIparae(sic) sacello, in quo mulieres convocarentur seorsim a viris, ad propriam in lege Divina institutionem relicto. Mensus hic pedes Geomaticos octoginta in longitudinem, et quadraginta quinque in latitudinem crucis figuram expressit.¹²⁾

[번역]

예수회가 그리스도를 키나에 전한 지 어언 80년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공개적으로 성당을 세우지 못하였다. 물론, 장엄한 성당을 짓는 데에 준비가 미비한 탓이다. 또한 아직 법령이 널리 공포(公布)되지도 않았는데, 성당 건립을 마음대로 감행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눈에 띄게 낮선 건물을 지으면서, 심지어 저토록 중요한 위치에 세우기 어려운 건물을, 그것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함부로 짓는 오만한 이방인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한 몫 거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사적인 지역에 지어진 소성당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모두 개인 주택의 담벼락 안에 세워진 것들이었다. 어떤 곳이 선택되었을 때, 이교도들도 그 곳을 허용해 주었고, 예수회 신부들은 그나마 은총이라 여기고 가능한 한 최대의 정성을 다하여 한편으로 그리스도들을 돌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예비 신자들을 일깨우는 성스러운 직무를 수행하였다. 마침내 주님의 은총으로, 천문학 연구를 통해서 길을 만드는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졌다. 타르타루스 인이 왕권을 장악한 이후의 일이었다. 사실, 벽돌과 돌들과 같은 자재들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도성이 불타 무너졌고 건물들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건축재료들을 풍부하게 구할 수 있었다. 당시 어떤 허가도 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허가권은 예조(禮曹)에 있었는데, 예조가 이를 쉽게 허가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해서 오로지 [아담 신부] 자신의 권위로 건축은 시작되었다. 권위는 불과 수 년 만에 일력(日曆)을 만들어 바치는 공적과

12) 『중국포교사』, 230-232.

새로이 등극한 왕의 성은이 만들어 준 힘이었다. 마야흐로, 왕이 보위에 오른 지 7년째의 해인 1650년에 처음으로 성당의 건축이 시작되었고, 그 이듬해에 완공을 보았다. 비용은 특히 왕실의 도움과 친구들이 보태주었다.

신부들이 거주하던 집 옆으로는 넓은 공터가 이어졌다. 원래 집들이 들어선 곳이었는데, 도적들의 방화로 황폐화 된 빈터였다. 이 터는 집들과 함천감(欽天監) 사이에 위치했다. 이 자리를 아담 신부가 왕에게 달라고 간청했고, 이를 얻어냈다. 두 집 크기의 공간을 성당과 지성소를 위한 자리로 배정하였고, 세 번째는 성모 마리아를 위한 자리로 남겨두었다. 여성 신도가 남성 신도로부터 분리되어 천주의 법에 정해 놓은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말이다. 성당의 길이는 80족장이고 넓이는 45족장인데, 전체는 십자가 모양을 형상했다.

어찌 보면, 위법 시비가 걸릴 수도 있는 건축 사업이었다. 사정이 이리함에도, 아담 살은 성당 건축을 감행했다. 아마도 이런 용기의 뒤에는 아담에 대한 순치제의 총애가 대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담에 대한 순치제의 시선에서 잘 드러난다.

[원문]

Tunc enim, inquit, Johannes Adamus Schall ab ultimo Occidente in Chinam veniens, quia non solum artem calculandi, sed theoriam quoque planetarum, et quidquid ad Astronomiam pertinet, callebat, annunciatus Imperatori, Academiae Mathematices et Calendarii curam suscepit. Sed quoniam quot capita, tot sententiae, inter aemulos concludi non potuit, ut nova methodo protinus uterentur.

“Ubi ego ad Imperium perveni, curam omnium primam pro rei necessitate ac populi utilitate, temporum rationibus ac calculo instaurandi impendi. Declinante ipso per Autumnum anno primo Imperii, feci experimentum eius, quod Adamus correxerat, Calendarii. Eclipsim solis ab eo jam dudum ante calculatam diligentissime observari jussi; et constitit tam temporis momenta, quam puncta caelestia cum aliis omnibus circumstantiis exactissime eius calculo respondisse. Iterumque sequentis anni Vere, cum se Eclipsis Lunae offeret, eadem diligentia calculis inspectis, patuit nec pilo aberrasse. Adverti illico hominem hunc a coelo aetati nostrae submissum atque Imperii ornamento, cuius regimen suscepseram. Quare Calendarii curam ipsi uni ac soli commisi; et quia Joannes Adamus a

pueritia castus est, nec ulla negotia, ab ejus instituto religioso aliena, in se recipit, necessarium duxi ad suscipiendum absoluto eum imperio constringere, eique secundi ordinis dignitatem ac titulum ac arcanorum coelestium Magistri addere: quo in officio annis jam aliquot occupatus, quotidie plus studii et diligentiae adhibet. Et quoniam intra Regiam urbem templum habet, in quo secundum ritum legis suae Deo Sacrificia offert, contuli non nihil ad illud orandum: quod cum insuper intrassem, adverti tam imagines quam utensilia peregrinum aliquid, ac Divinum refferre. De libris quoque, quos in mensa positos conspexi, ipse quid continerent interrogatus, complecti explicationem legis Divinae respondit. Applicui alias animum ad Doctrinas *YAÓ XÚM CHEŪ*. Nec pauca ex Tartarorum ac Chinesium voluminibus lectione percepit, non immemor eorum quoque, quae sapientes Fae et Tao, quamvis recondita, nec satis enucleate tradiderunt; quamvis etiam ferre iudicium de lege Dei nondum plane mihi perspecta possim; attamen dum considero Joannem, qui tot annis apud Sinas et Nobiscum versatus legis Divinae experimentum ac formam vivendo exhibet, eam omnium optimum esse iudico. DEUM namque ille reveretur adeo, ut eidem templum hoc dedicarit, tanta personae suae integritate et modestia a tot annis eadem semper methodo huic legi se conformat, ut nec apicem variet: profecto istud solidae perfectionis indicium est, et ipse se hominem probatissimae virtutis esse comprobat. Utinam Magistratus mei hanc eius industriam serveindi Deo et deserviendi Suo Imperatori saltem adumbrarent! Procul dubio multis partibus melius et felicius mecum et cum toto Imperio ageretur. Quod ad me attinet, Ego hanc eius vivendi rationem vehementer approbo et laudo, ideoque ad perpetuam huius rei memoriam hunc eius Ecclesiae titulum praefigo. *Che Sù túm Hiuen Kià Kivèn*: quae voces ad verbum significant: Excellentem penetrando caelo locum, domui Regiae charum. Cui inscriptioni addidit Pater Adamus in aversa facie arcus picturam viae Regiae ad coelos, cui symbolo Ecclesiae nomen ab Imperatore designatum, aureis literis inscripsit Sinico ac Tartarico idiomate. Subiunctum est encomium inscriptionem explicans versibus Sinicis comprehensum, ut plurimum decem; at Ecclesiae isti Rex duplicatos indulsit. Hos qua potui, inquit P. Adamus, non qua deberent, arte, fere ad verbum latine sic reddidi.¹³⁾

13) 『중국포교사』, 227-230.

[번역]

그(순치제)가 말했다. “그때, 극서(極西)에서 키나로 아담 살이 당도했다. 그는 수학과 천문에 대한 이론과 별자리와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황제(명나라 신종)의 부름을 받았고, 한림원에서 수학과 계산을 다루는 직무를 맡았다. 허나, 십인십색(十人十色), 새로운 방식의 즉각적인 도입에 대해서 경쟁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등극하자마자, 과인은 다른 모든 사안 가운데에서도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부터, 또한 백성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였다. 이를 위해 과인은 시간을 분간하는 방법과 계산하는 체계를 세우는 일에 특히 전력을 기울였다. 등극 첫해 늦은 가을에, 과인은 아담이 교정한 달력을 시험했다. 아담이 이전에 오랜 동안 계산했던 일식을 관찰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일치했다. 움직임이 시간에 들어맞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주변의 현상들과 함께 하늘에서 [일식] 일어나는 지점이 그의 계산에 들어맞았다. 이듬 해 봄에 월식이 또 일어났는데, 마찬가지로 세밀한 계산을 통해 검사해보니, 한치의 오차도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자 과인에게는 하늘이 이 사람을 과인의 시대가 변영하고 과인이 다스리는 통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내려 주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과인은 달력을 관장하는 일에 대한 전권을 이 사람에게 부여하였다. 왜냐하면, 아담은 어려서부터 경건했고, 또한 자신의 종교적 원칙에 어긋나는 업무는 어떤 것도 맡으려 하지 않았기에, 과인은 황제의 절대적인 명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 직무를 맡겼다. 그에게 정2품의 품계를 내렸고, 흠천감(欽天監)직을 부여했다. 이 직무를 부여 받은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그는 매일 근면과 열성을 다했다. 또한, 도성 안에 성당이 있었는데, 그는 이 안에서 그 자신의 예법에 따라 신에게 예배도 올렸다. 과인도 이 예배에 적지 않은 바를 보태주었다. 무엇보다도 과인이 이곳에 들어섰을 때에, 성상들과 물품들이 뭔가 이방의 진기하고 신성함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책상에 서책들이 놓여있어서, 과인이 무슨 책들이냐고 묻자, 그는 천주의 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것들이라 답했다. 문득, 요-순-주(堯-舜-周)의 가르침이 과인의 마음에 떠올랐다. 만주 서책들과 한문 서책들을 과인도 적지 아니 읽었다. 과인은 또한 불교와 도교 현자들의 가르침도 기억하고 있었다. 비록 그들의 설명이 명쾌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가르침 안에도 숨어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천주의 법에 대한 과인의 깨우침은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천주의 법이 가장 훌륭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증거가 아담 살이다. 그가 시나¹⁴⁾로 와서 과인과 함께 한 지가 여러 해다. 이러한 중에 그의 삶의 방식이 곧 천주의 법을

입증하고, 그 본래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가 천주를 경외하는 것은 이 정도다. 천주에게 이 성당을 봉헌할 정도이니 말이다. 그의 사람됨은 이토록 순수하고 겸손하다. 여러 해를 지켜봤지만, 언제나 한결같다. 천주의 법에 따라 자신을 다듬어 드러내었다. 어느 것 하나 천주의 법으로부터 한 치도 벗어남이 없었다. 각설하고,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완벽함의 증표다. 바로 그 자신이 가장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부디, 과인의 신하들도 천주를 섬김과 과인을 받드는 일에 있어 그가 보여준 근면함의 그림자 정도만 닮는다면 좋겠다. 과인과 이 나라 전체가 더 잘 되고 더 번영하기를 바라는 것이 실은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 과인으로 말하자면, 과인은 특히 그의 삶의 방식을 좋아하고 칭찬하는 바이다. 과인은 해서 이 일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기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인은 그가 지은 성당의 명칭을 지어 내린다.”

칙서통헌가경(勅書通玄佳境)

이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 이렇다: 하늘(天)을 꿰뚫어 봄(통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고, 왕궁의 아름다운 곳이다. 이 비문을 위해서 아담 신부는 둥근 아치의 머리 부분의 뒷면에 하늘로 향하는 왕궁의 길을 새긴 그림을 새겼고, 성당을 알리는 표시로 [앞면에는] 황제가 하사한 시나 말과 타르타루스 말로 된 이름을 황금 글씨로 비문에 새겼다. 그 아래에는 이 비문을 설명하는 찬사가 새겨졌다. 찬사는 시나 말로 된 시문이다. 대개는 10행 정도인데, 왕(Rex)이 바로 이 성당에 하사한 것은 두 배가 넘는 시문이었다. 아담 신부의 말이다. “나는 시행들의 뜻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기교도 부리지 않았고, 그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거의 문자 그대로 라틴어로 옮겼다. 아래와 같다.”

Immensa coeli machina
Nunquam rotando deficit,
Planeta quisque proprium

하늘의 헤아릴 수 없이 큰 장치여
한번도 운행을 쉬지 않는구나,
무엇이든, 행성의 운행에 따라

Eundo motum conficit.	각기 고유한 운동을 수행하는구나.
Hinc omne quod coelo subest	여기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Ortum exitumque postulat:	시작과 끝을 구하도다.
Ars cuncta deinde machinis	학문은 장치들을 통해서 전체를
Observat atque supputat.	관찰하고 측정하는구나.
Europa nobis hospitem	에우로파는 우리에게 손님을
Submisit istuc inclytum	이토록 빛나는 이를 보내주었도다.
Sunt astra, et horum calculus ¹⁵⁾	별들은 이 계산으로
Statim reducta in integrum.	곧장 제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Ut muneris sic Numinis	이와 같은 하늘의 뜻이 담긴 귀한 선물을
Oblitus haud unquam fui;	과인은 한번도 잊은 적이 없노라.
Dum debitum signis sacris	그는 성스러운 상징들과
Temploque cultum praeparat	성당을 위해 바쳐야 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Dum sedulus servit DEO	그는 성심을 다하여 천주를 섬기고
Et munus exaequat suum,	또한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동안에도,
Chinensibus et Tartaris	키나인들과 타르타루스 인들에게
Tum forma vivit actuum.	살아있는 행동의 귀감(龜鑑)이도다.

순치제의 말과 비문에서 지적해야 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순치제가 공식적으로 성당 건축을 허가했으며, 성당을 방문하고 성당의 이름까지 하사했으며, 심지어는 성당 건축은 물론 미사에도 많은 비용을 보태주었다는 사실이 첫 번째다. 성당 건립의 성과와 영향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하겠다.

두 번째로, 천주교를 바라보는 순치제의 시선에 대해 지적하겠다. 물론, 더 조사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순치제가 천주교의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성당에 들어갔을 때에 일종의 경외심이 들었다는 말과 천주의 법에 대해서 아담 살과 순치제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에서, 따라서 순치제가 “천주의 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15) calculus *HRC, fortasse recte esse calculis*

하지만 순치제가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아담 살이 이를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기록은 없다. 어쩌면, 물리적인 이유에서도 아담이 순치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하인 아담 살이 황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게다가 물을 뿌리는 일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을 법한데, 아마도 그것은 자신이 천자(天子)라는 황제의 생각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한 문헌 고증이 요청된다 하겠다. 하지만, “천주의 법”이 “요-순-주”를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불교와 도교의 숨은” 가르침과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순치제의 말에서, 그가 천주교의 교리를 유교나 불교와 같은 심급에 있는 한 가르침 정도로 이해¹⁶⁾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천주의 법”이 아무리, 순치제의 말대로,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여러 가르침 가운데에서 소위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천주의 법이 가장 훌륭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천자보다는 상위의 심급에 있는 무엇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 순치제가 유교나 불교에 대해서 몰랐다면, 그도 중세 게르만

16) 천주의 법에 대한 순치제의 이와 같은 이해는, 그러니까 이런 태도에 대한 서양의 근대 계몽 철학자들의 해석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요컨대, 크리스티안 볼프 같은 철학자의 생각은 이렇다. (*Oratio Sinarum Philosophia Practica*, cap. 40-49) *Egidem non ignoro, viros ultra humanam sortem sapientes, quos Theologorum nomine veneramus, non ex vano contendere, quod divina gratia suffultus efficere possit, quae naturae viribus superiora deprehenduntur. Quamvis vero, quod divino lumine illustrate perspiciunt, utique cum rei veritate consentire debeat: idem tamen nostro asserto minime repugnant. Cum enim anima hominis gratiae divinae capax sit, alias oblatam in se admittere non valeret; in ipsius essentiali atque natura ratio aliqua contineri debet, cur eam in se admittere possit, quaecunq; tandem illa fuerit. Est itaque humanae conveniens, ut vires naturae vi gratiae extendantur et ad maiorem gradum evehantur.*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당시 서양의 계몽 철학자들에게는 매우 큰 용기를 요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용기의 배경에는 요컨대, 순치제의 태도에서 보이는 천명과 본성에 대한 동양 철학의 입장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논구가 필요하다.

의 왕들처럼 개종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유교나 불교와 유사한 심급에 자리한 가르침이라 생각했기에 굳이 “천주”의 “제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이고, 실은 자신이 “천자”였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이것이 순치제가 천주교의 세례를 받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순치제가 “천주의 법”을 신하의 덕으로, 혹은 아담 살의 개인의 덕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이유가 해명된다. 이는 천주의 법을 받드는 아담 살에 대한 순치제의 다음 언명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성스러운 상징들과// 성당을 위해 바쳐야 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는 성심을 다하여 천주를 섬기고// 또한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동안에도,// 키나인들과 타르타루스 인들에게// 살아있는 행동의 귀감(龜鑑)이도다.” 결론적으로, 순치제에게 “천주의 법”은 유교의 가르침과 같은 심급에 있는 교리 정도로 이해되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세 번째로 지적해야 할 사항은, 따라서, 순치제에게 아담 살은 어디까지나 훌륭한 덕을 지닌 신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순치제가 “천주의 법”을 신앙의 차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천주교를 관용해 준 것도 실은 신하 아담이 보여준 충성과 헌신의 태도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신하 아담이 보여준 충성과 헌신의 바탕은 아담이 믿는 천주의 법이고, 그렇다면, 이 천주의 법은 또한 자신의 통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순치제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는 “과인의 신하들도 천주를 섬김과 과인을 받드는 일에 있어 그가 보여준 근면함의 그림자라도 적어도 밝기를 기원한다. 과인과 이 나라 전체가 더 잘 되고 더 번영하기를 바라는 것이 실은 나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리라”에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아담을 바라보는 순치제의 시선에서 이미 서학(西學)과 서교(西敎)의 구분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순치제가 아담 살에게 하사한 비문(碑文)에서 잘 드러나는데, 서양 학문의 탁월함에 대해서는 지극한 예찬을 하는 반면,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는, 그것은 신하 아담 살의 개인적인 덕성으로 국한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아마도 여기에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자신이 천자(天子)라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순치제는 아담 샬의 서양 천문학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극찬의 배경에는, 물론 순치제 자신의 학문적인 열정도 한 몫 거들었겠지만, 실은 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한 나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한마디로, 순치제에게는 천자로서 자신의 통치와 지배를 정당화해 줄 뭔가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군사력으로 중원의 황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을 만주에서 온 오랑캐에 불과하다고 바라보는 한족(漢族)을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명실상부한 “천자”라는 점을 입증해 줄 뭔가가 필요했는데, 어찌면, 그 뭔가 가운데에 하나가 천문 현상에 대한 논쟁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식과 월식과 같은 천문 현상은 하늘의 뜻을 알리는 전조인데, 일식과 월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음을 통해서 자신이 천자라는 점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와 계기를, 그런데 그 계기를 아담 샬이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것이 아담 샬이 순치제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것이 순치제가 “에우로파의 손님”인 아담 샬이 제공한 천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까닭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와 같은 하늘의 뜻이 담긴 귀한 선물을// 과인은 한번도 잊은 적이 없노라!”라는 순치제의 언명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천주의 법”은 그냥 아담의 덕일 뿐이다. 여기까지가 아담 샬을 바라보는 순치제의 시선이다. 신하 아담이 믿는 천주의 법은 아담의 사적인 덕목에 불과했지만, 신하 아담이 제공한 천문학은 자신이 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천문학은 중요한 학문으로 인정받는다. 중국에서의 서양 학문과 서양 종교의 분리-수용 전통은 아마도 순치제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다.

Ⅲ. 아담 살을 바라보는 소현 세자의 시선

조선에서 서양 천문학을 처음 접한 이는 정두원(鄭斗源, 1581~?)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631년(인조 9년) 북경에서 돌아올 때 포르투갈 신부 로드리케스(J. Rodriguez, 陸若漢, 1561-1633년)¹⁷⁾에게서 <치력연기, 治曆緣起> 1권, <천문략, 天文略> 1권, 자명종 1부, 천리경 1부, 일구관(日晷觀) 1좌를 얻어왔으며, 관상감 제조(提調)였던 김육이 1644년(인조 22)에 시헌력을 채택할 것을 상소했다고 한다. 조선이 시헌력을 도입한 해는 1653년(효종 4년)이었다.¹⁸⁾ 따라서, 조선의 서양 학문과 문물 수용과 관련해서도 『중국포교사: 1581-1669』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아담 살 신부와 본격적인 혹은 깊은 교류를 나눈 사람은 소현세자(1612-1645)다. 소현 세자가 아담 살을 만난 시기는 1644년 9월이었다. 약 두 달 여 간에 걸쳐 소현 세자는 아담 살 신부를 찾아서 서양 학문과 종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북경 남당(南堂)의 신부였던 황비묵이 『정교봉포(正教奉褒)』에 남긴 말이다.

순치원년(順治元年, 1644)에 조선의 세자가 북경에 볼모로 잡혀와 있으면서 아담 살이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때때로 천주당에 찾아와서 천문학 등을 묻고 배워갔다. 아담 살도 세자가 거처하는 곳을 자주 방문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이 뜻을 같이 하는 바가 있었다. 아담 살은 연달아 천주교가 바른 길임을 이야기하고, 세자도 자못 듣기를 좋아하여 자세히 묻곤 하였다.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자, 아담 살은 선물로서 그가 지은 천문·산학(算學)·성교정도(聖教正道) 등의 여러 서책들과 여지구(輿地球)와 천주상(天主像)을 보냈다. 세자는 삼가 이것을 받고 손수 글씨를 써 보내어 예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17) 이익(李瀾), 『성호사설(星湖僊說)』, 제4권 육약한조(陸若漢條); L. Pfister, *Notices Biographiques et Bibliographiques sur les Jesuites de L'ancienne Mission de Chine* (Chang-Hai, 1932), 1552~1773.

18) 노대환, 「조선 후기의 서학유입과 서기수용론」, 『진단학보』 83집 (1997).

낮선 만남이었지만, 서양 신부와 조선 세자가 만났고, 깊은 교류를 나눈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중국포교사』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양 학문과 종교인 그리스도교에 대한 세자의 입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편지 두 통이 수록되어 있다. 소현 세자의 편지는 야마구치 미사유키의 『조선서교사(朝鮮西敎史)』에 일부 번역되어 이미 국내에도 소개되었다.¹⁹⁾ 하지만, 이 번역은 원문을 참조한 것도 아니고 그 출처도 불분명하다. 일부 번역은 명확하지도 않다. 또한 결정적으로 소현 세자가 천주교의 세례를 받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도 않다. 나중에 보낸 편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런 이유에서 약간은 길지만 편지 전체와 소현 세자에 대한 아담 샬 신부의 글 전체를 원문과 함께 소개한다. 편지는 세자가 손수 한문으로 쓴 것이다. 그 내용에 감동한 아담 신부가 라틴어로 직접 번역했다. 원문과 번역은 아래와 같다.

[원문]

Per idem tempus Coreanorum Rex, quem Tartari antea in CEÂO TÛM novam curiam suam captivum abduxerant, promisa libertate, quam primum Chinense imperium obtinuissent, nunc libertate donatus aderat. Hic astronomum Europaeorum alioquoties humanissime invisit, et eadem humanitate hospitem in Palatio suo accepit. Adduxerat e suis aliquot, qui Calendario in Corea cum officio praeerant, ut ex astronomia luculentius aliquid addicerent, quod in Patriam reportarent. Lubens obsecutus Pater adeo sibi Principem et homines istos devinxit, ut praeter munuscula non contemnenda, in signum grati animi, cum jam discederent, etiam copiosas lacrymas addiderunt. Regi vero, quoniam literis delectari notum erat, ut Coreani plerumque omnes solent, exemplar librorum quorumvis, quod ad manum fuit, non tantum mathematicorum sed eorum etiam, qui de lege tractant, una cum sphaera caelesti et imagine Salvatoris dono data sunt. Quae munera accidissee perquam grata sequens docebit epistola, quam e suo palatio Sinicis characteribus et propria manu ad P. Adamum Rex Coreanus exaravit.

“Heri,” inquit, “cum insperatum munus imaginis Salvatoris DEI, Sphaeram,

19) 이 책의 원본은 山口正之, 『朝鮮西敎史 : 朝鮮キリスト敎の文化史的研究』(雄山閣, 1967)이며, 아직 한국어 번역은 없다.

libros astronomicos, aliasque Europaei orbis scientias complexos, et a te mihi praesentatos inspicerem, vix credes quantopere gavisus sim, et quantum ab hoc me debere tibi agnoscam. Cumque ex libris aliquos obiter percurrerem adverti ab his afferri doctrinam ad expoliendum animum et virtutibus excolendum aptissimam. Quam in hoc nostro orbe intellectus lumine plus quam par est, obscurato, hactenus ignoravimus.

Sacrae Imaginis tanta est Majestas, ut in pariete suspensa intuituum animos non solum ultro componat, sed ex iis etiam sordes omnes et pulverem abstergat. Ad sphaeram et libros quod attinet, cum sint tales, ut iis carere mundus nequeat, nescio qua mea fortuna mihi obtigerunt. In regno meo tametsi non minus tales inveniantur, eos tamen scaterere mendis et ab aliquot saeculis plurimum aberrasse a vero non diffiteor. Quapropter nunc istis locupletatus, quomodo non ex animo gaudeam? Quando in regnum reversus fuero, eos non solum in regiam nostrum inferam, sed et praelo datos et excusos communicabo literarum studiosis. Habebunt unde posthac mirentur sortem suam, qua tamquam ex deserto in Palatium eruditionis translati²⁰⁾ sunt, scientque Coreani, se hoc Europaeis literis totum debere. Interim quod ambo nos non solum ex diversis regnis oriundi, sed regnis etiam tam longe dissitis totoque Oceano divisus in alieno solo convenientes, quasi sanguinis foedere juncti amamus invicem, non satis capio, qua occulta naturae vi eveniat. Cogor fateri hominum animos studiis coniungi, quantumvis terris longissime disjungantur. Nunc vero utinam tam libros, quam imaginem mecum in Patriam auferre possem! Dum enim cogito meos Regnicolas nihil de cultu divino, adhuc inaudisse, posseque cultu erroneo, quem observant, eius Majestatem offendere. Haereo admodum anxius. Proinde judico imaginem venia tuta ad te remittendam, ne culpam neglectae reverentiae, quae eidem debetur, una cum illa asportem. Meum erit gratitudinis ergo quidquid in patria dignum invenero, saltem unum pro decem millibus tibi offerre. Vale.”

Haec ille per epistolam; in qua tametsi de imagine remittenda fiat mentio, id tamen more gentis modestiae causa additum est. Nam cum instaret Pater, ut imaginem retineret Rex, atque unum ex Eunuchis eius domesticis, jam baptizatum, probeque instructum propediem in regnum remittendum significaret, futurum eruditioni caeterorum, qui edoceri desiderant.

Rescripsit ille denuo: “cum gaudio acceptare se munus: Mallem vero,” subdit, “de sociis tuis aliquem mecum degere, qui me et gentem meam

20) translati *HRC: correxi*

erudiret. Sed quandoquidem, qui adveniat, non est praesto, iste utcunque vices tuas et tuorum supplebit.” Non impetravit tamen Rex iste legis divinae praecones ex Chinis. Imo postea per Tartaros aditu omnino intercluso, in regnum possibile prorsus non fuit eo coloniam deducere, adeo fines custodientibus hostibus, ut numeratos, designatosque tantum modo ingredi et exire regionem eam paterentur. Aliunde quoque terra, marique, sed frustra, additum in Coream Patribus ex Seraphico Ordine S. Francisci investigantibus.²¹⁾

[번역]

바로 그 시기²²⁾에 조정(朝廷)이라 불리는 신궁(新宮)에 갇혀있던 코레아의 세자가 자유롭게 풀려났다. 그는 타르타루스 인들에 의해서 볼모로 끌려왔는데, 타르타루스인들이 중국의 지배권을 장악하면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는 약속에 의한 조치였다. 코레아 세자는 이곳에 있는 에우로파로부터 온 천문학자를 자주 방문했고, 또한 그에게 지극히 정중한 예의를 보였다. 또한 자신의 궁으로 초대하여 극진하게 환대하였다. 종종 그는 코레아에서 달력을 다루는 관직을 맡고 있던 몇몇의 신하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이 천문학에 대해 보다 명쾌하게 배워서 그것을 조국으로 가져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담 살> 신부는 기꺼이 그의 청을 들어 주었다. 신부는 세자와 그의 신하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 그가 준 작은 선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은 물론,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이 떠날 때가 되자 또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였다. 대부분의 코레아인이 그러하듯이, 세자도 글 읽는 것을 사랑했다. 해서 신부는 당시 가지고 있는 서적 가운데에 몇 권을 골라서 세자에게 선물했다. 수학 서적뿐만이 아니라 천주의 법에 대한 서적들과 천구(天球)와 구세주의 성상(聖像)이 선물로 주었다. 이 선물에 얼마나 감사했는지는 다음의 서신이 잘 보여준다. 이 서신은 코레아 왕이 손수 한문으로 쓴 것으로 아담 신부에게 보낸 것이다. 그가 말했다.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어제 구세주 하느님의 성상과 천구와 천문 서적과 에우로파 세계의 학문을 담고 있는 다른 여러 서적들을 받았습니 다. 특히나 저에게 보낸 책들을 지켜보노라니, 어찌 감사를 표해야 할지, 어찌 이 빛을 갚아야 할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몇 권의 책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책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21) 『중국포교사』, 139-142.

22) 순치원년(順治元年, 1644)

덕을 닦는 데에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지성의 빛이 아직 밝지 않은 탓에 우리는 아직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성상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벽에 걸어놓고 보노라면 보는 이의 마음을 지극히 평온하게 해 줍니다. 또한 마음에서 온갖 더러움과 먼지를 떨어내어 줍니다. 친구와 이에 관한 책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세상이 이것 없이는 안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천운이 찾아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왕국에서도 이런 류의 책들을 적지 아니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이 수 백 년에 걸쳐 진실과는 아주 크게 동떨어져 있는 서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책들로 내가 큰 부자가 되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왕국으로 되돌아갈 때에, 나는 이 책들을 왕실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를 인쇄하고 책으로 찍어 학자들과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그들은 이 책들을 읽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책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마치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학문의 궁전으로 옮겨지게 된 운명의 변화에 대해서 놀랄 것입니다. 코레아 인들은 이 모든 것이 에우로파의 글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왕국에서 전혀 다른 이방의 땅에 와서 서로 만났습니다. 마치 같은 피로 맺은 친구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어떤 숨겨진 힘이 우리를 이렇게 맺어주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학문에 의해서 연결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아주 먼 곳에서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한데, 우리 나라로 이 서적들은 물론 성상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허나, 생각해보니,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전혀 없고, 해서, 코레아 인들이 지켜왔던 잘못된 가르침의 승배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 분의 위대함이 공격 당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심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호의는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성상은 신부님께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안전하다 판단했습니다. 성상을 가지고 감으로 해서, 당연히 경배 받아 마땅함에도 오히려 멸시당하게 함으로 해서 짓게 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자 할 따름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값지다고 여기는 조그만 물건을 하나 보냅니다. 신부님이 나에게 해 준 것에 비하면, 만분의 일에 불과합니다. 안녕히 계시길 기원합니다.” (『소현세자의 첫 번째 서신』)

그의 편지는 여기까지다. 물론 편지에는 성상을 되돌려준다는 언급이 있지만, 이는 그럼에도 이 나라 사람들이 겸손해서 한 말이다.

왜냐하면, 아담 신부가 왕에게 선물을 받으라고 권유하자, 왕은 자신이 거느리는 내시 한 명을 지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그를 제대로 교육해서 곧바로 다시 보내겠다고 했다. 배우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왕은 곧장 답장을 다음과 같이 보내왔다.

“선물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또한 당신의 <예수회>에 속하는 사람을 한 분 모시고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와 우리 나라 사람을 가르칠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함께 갈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예수회>를 대신해 줄 그런 사람 말입니다.” (『소현세자의 두 번째 서신』)

이런 바람에도, 왕은 결국에는 신성한 법을 전파할 사람들을 키나로부터 데리고 가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왕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타르타루스 인들이 나중에 국경의 모든 관문을 철저히 봉쇄해 버렸고, 이에 맞서서 맞은 편 지역의 적들도 국경의 경계를 삼엄하게 지켜버렸다. 그래서 등록된 사람들과 허가받은 사람들만이 오로지 그 지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프란키스쿠스 수도회 신부들이 육로로든, 해로로든 다른 지역을 통해서 조선으로의 입국을 시도했지만, 그토록 들어가려 했건만, 모두 실패했다.

이상이 세자의 편지에 아담 샬의 번역문과 이에 대한 그의 평가다. 단적으로, 세자의 편지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아담 샬과 소현의 관계 설정 문제가 첫 번째다. 앞에서 살피었듯이, 아담 샬은 순치제에게 훌륭한 신하에 불과한 반면, 세자와 신부의 그것은 군신(君臣)이 아니라 친구 혹은 형제 관계다. 이는 세자의 “마치 같은 피로 맺은 친구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언명에서 확인된다. 당시, 아담이 청나라의 고위 관료지만, 천주의 법을 실천하려는 신부의 지극한 겸손함이 아마도 세자와 신부를 친구로 맺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순치제가 아담의 충성스러운 덕목을 부각한다면, 소현 세자는 아담의 우정과 호의를 강조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따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패전국의 세자에게 신부가 보여준 호의와 환대가, 특히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을 심중에 품고 있던 세자에게는 큰 감동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그들이 천문학에 대해 보다 명쾌하게 배워서 그것을 조국으로 가져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담 살> 신부는 기꺼이 그의 청을 들어 주었다. 신부는 세자와 그 신하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 그가 준 작은 선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은 물론, 그들이 떠날 때가 되자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였기에 말이다”라는 신부의 언명에서 확인된다. 어찌면, 이런 사정을 놓고 볼 때에, 소현에게 아담은 친구를 넘어선 스승에 가까운 존재였을 것이다. 어찌면, 이런 인간관계가 “천주의 법”을 바라보는 소현의 태도와 순치제의 그것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사항인 천주교를 바라보는 소현의 시선과 입장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자. 순치제에게 “천주의 법”은 신하의 덕이었다. “천주의 법”은 또한 유교나 불교의 가르침과 같은 심급에 있는 일종의 수신과 수양의 교리였다. 천주의 법을 바라보는 순치제와 소현 세자의 입장은 여기에서 큰 차이가 드러난다. 세자에게 “천주의 법”은 유교나 불교의 가르침과 같은 심급에 있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서, 소현이 “책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덕을 닦는 데에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세자에게도 “천주의 법”이 수양의 도구인 것은 맞지만, “가장 적합한”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는, 적어도 아담의 언급에 따르면, “천주의 법”이 전통적인 유교와 불교의 가르침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소현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는 추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단순한 추정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자 자신이 유교의 가르침을 암묵적으로 비판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코레아인들이 지켜왔던 잘못된 가르침의 숭배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 분의 위대함이 공격당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가 그 전거다. 이런 사정을 놓고 볼 때에, 순치제에게 “천주의 법”은 신하의 덕목에 적합한 무엇이었지만, 소현에게는 적어도 세자 자신의 수신과 수양에 도움이 되었던 무엇인 동시에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선 무엇이었음이 분명하다. 그 전거는 “성상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벽에 걸어놓

고 보노라면 보는 이의 마음을 지극히 평온하게 해 줍니다. 또한 마음에서 온갖 더러움과 먼지를 털어내어 줍니다”라는 세자의 고백이다. 물론 순치제도 성당에 방문했을 때에, 어떤 경외감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의 세자가 가졌던 마음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세자가 “천주의 법”을 어느 정도 깊숙하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세자가 과연 천주교의 세례를 받았는지 혹은 아닌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과 직결된 물음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자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약 세자가 세례를 받았다면, 아담 샴이 이를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세자가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천주교에 대한 세자의 입장은 양면적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 인간으로서 세자는 이미 “천주의 법”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조선으로 귀국할 때에 신부에게 보낸 처음 편지에서는 천주의 성상을 신부에게 되돌려준다고 했지만, 나중 편지에는 성상을 포함한 선물을 모두 받겠다는 언급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세자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럴 용기가 없지도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회 신부를 데리고 귀국하려는 마음을 먹은 정도였기에 말이다. 그럼에도, 세자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필시 다른 사정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소현이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야기할 정치적인 파장과 직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허나, 생각해보니,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전혀 없고, 해서, 코레아인들이 지켜왔던 잘못된 가르침의 숭배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 분의 위대함이 공격당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심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라는 언명에서 소현의 속내가 엿보인다. 천주를 욕보일 수 있다고 표현했지만, 실은 성상을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세자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세례를 받지 않았던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자는 귀국 후, 2개월 만에 의문사를 당한다. 혹자는, 그가 타살되었다 한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세자가 세례를 받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세자가 자신이 사인(私人)이 아니라 국본(國本)이었기에 세례를 받을 수 없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인으로서 세자가 “천주의 법”을 받아들인 정도는 오히려 세례를 받은 것 이상이었음도 또한 분명하다. 이는, 요컨대, 세자가 자신을 보필하던 내시(內侍)의 세례를 허락했다는 사실에서, 심지어 아담 신부에게 그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달라고 맡기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왜냐하면, 신부가 왕에게 선물을 받으라고 권유하자, 왕이 거느리는 내시 한 명을 지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그를 제대로 교육해서 곧바로 다시 보내겠다고 했다. 배우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다”가 전거다.

마지막으로, 순치제처럼, 소현 세자도 서양 학문과 종교를 구분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도록 하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자도 구분해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세자의 입장은 황제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서로 유사해 보인다. 기실, 황제가 서양의 학문을 크게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했듯이, 세자도 그랬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코레아인들은 이 모든 것이 에우로파의 글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라는 언명이 그 전거다. 해서, 세자가 황제를 소위 역할-모범으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미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서양 학문과 서양 종교, 이 양자 가운데에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는지를 따지면, 양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순치제는 서양 종교보다는 서양 학문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그에게 서양 종교는 신하의 덕이고 개인의 수양 수단이었다. 하지만 세자는 서양 학문보다는 서양 종교를 더 중시한다. 이는, 단적으로, “이 가운데 몇 권의 책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책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덕을 닦는 데에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지성의 빛이 아직 밝지 않은 탓에 우리는 아직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라는 세자의 고백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양자 사이에 있는 차이는, 또한 황제가 신부에게 내린 비문의 내용 구성에서 쉽게 확인된다. 비문의

중심은 서양 천문학에 대한 예찬이다. 하지만, 소현의 편지는 이와는 대조적이다. 편지의 골간을 구성하는 내용은 천문학이 아니라, “천주의 법”에 대한 예찬이다. 이것이, 물론 소현 세자도 서양 학문을 중시했지만, 그가 “천주의 법”을 더 근본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증거다.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에 세자가 서양 학문보다는 종교에 무게 중심을 두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선물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또한 당신의 <예수회>에 속하는 사람을 한 분 모시고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와 우리나라 사람을 가르칠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함께 갈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예수회>를 대신해 줄 그런 사람 말입니다” 라는 언명이 결정적인 전거일 것이다. 이 언명은 소현이 두 번째로 보낸 편지에서 한 말이다. 이 언명에서 주목해져야 할 것이, 아마도 “나와 우리나라 사람을 가르칠 사람”이라는 표현일 것이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천주의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신부다. 여기에서, 소현이 서양 학문보다는 서양 종교를 더욱 근본적인 무엇으로 생각했음이 잘 드러난다. 어쨌든, 두 번째 편지에 따르면, 소현은 결국 “천주의 법”을 담은 책들과 함께 천주의 성상과 성물을 가지고 귀국했다. 그 때문에 의문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단지, 신하의 덕이 아닌 왕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교육하고 이끄는 단순한 학문이 아닌 새로운 종교를 끌어들이려 했기에 말이다.

IV. 뒷이야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갈무리하자. 한마디로, 아담 샬이 북경에서 이룩한 업적은 대단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사다. 동양의 시간 체계를 새로이 정비한 시헌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예수회의 입장에서 보면, 시헌력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북경의 남당 건축이었을 것이다. 이는 “천주의 법”을 공개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아니 천주교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아담 살의 남당 봉헌이 예수회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결코 단발성 건축 사업이 아니었고, 남당 설립 이후 청나라 전역에서 세워지게 될 천주교 성당들의 선례-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1650년 북경에 남당이 건립된 지 3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당시 청나라에는 약 240곳에 성당이 세워진다. 이 수는 1681년에 집계된 것이다. 당시 신자의 수는 약 26만 명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 30년도 안 걸린 셈이다. 당시 성당의 소재를 알리는 지도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Tabula Chronologica Monarchiae Sinicae (p. 106)

Templa vero Deo dedicata, praeter Sacella, sunt circiter 240.

Christianorum numerus anno 1681 erat circiter 260,000.

『시나 왕국의 연대표』(106쪽)

천주에게 봉헌된 성당은, 소성당을 제외하고, 대략 240 곳이다.

교인의 수는 1681년을 기준으로 대략 26만 명이다.



[그림-6] *Paradigma XV Provinciarum et CLV Urbium Capitalium Sinensis Imperii cum Templis quae cruce + signantur et Domiciliis*:(시나 제국의 15성과 155개의 시와 성당들, 성당들은 십자가로 표시가 되어있고, 신부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표기되어 있음)

지도는 『중국인 철학자 공자』에 수록된 것으로, 작성자는 아담의 후계자였던 마르티네스였다. 결론적으로, 위의 지도가 입증해주듯이, 천주교의 이와 같은 확산에는 아담의 남당 성당이 나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예수회의 노력으로 천주교는 청나라 황제 강희제로부터 공식적인 포교와 종교 활동 일반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1690년의 일이었다.²³⁾ 예수회가

중국에 들어온 지 약 100여 년이 지난 후였다. 그런데 천주교가 이렇게 확산할 수 있는 데에는, 결정적으로 천주교가 청나라 황실로부터 승인을 받는 일이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마테오 리치와 같은 선배 선교사들의 포교 노력도 중요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담 살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승인은 어찌되었든 황제로부터 얻어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누군가는 황제 가까이에서 머물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아담 살이 차지했던 흠천감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자리는 1744년, 그러니까 아담 신부가 처음 부임한 1644년 이래로 100년간 예수회 신부들이 차지한다. 이 자리가 천주교의 승인을 얻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양인이 동양의 학문(적어도 천문학)을 관장하는 수장 자리를 차지한, 그것도 100년간이나 차지한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진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전교 전략(Top-down)²⁴⁾” 탓일지도 모르겠다. 그 이후의 중국에서의 천주교가 겪어야 했던 운명이 말이다. 위의 지도가 보여주듯이, 적어도 17세기 말엽의 천주교는 파죽지세(破竹之勢)의 위용을 떨치며 확산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사정은 결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도 다른 이유들이 분명코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결론적으로, 또한 오늘 날의 중국의 현재 상황을 볼 때에, 적어도 예수회의

23) 이에 대한 결정적인 전거는 1690년에 강희제가 예수회 신부에게 내린 <천주교> 인정서이다. 이 문서는 현재 대만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데, 이 문서에 대한 한글 번역이 시급하다.

24) 소위, “위에서 아래로”의 포교 전략은 예수회의 선교 전략에서 이그나티우스가 세운 대원칙이다. 이 전략은 상층부를 먼저 포교한 후 하층부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예수회의 이런 전략은 당시 인구에 회자에 되었던 노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김상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2010, 흥성사), 46).

Bernadus valles, montes Benedictus amabat,

Oppida Franciscus, magnas Ignatius urbes.

베르나르두스는 계곡을, 베네딕투스는 산을 사랑했고,

프란키스쿠스는 작은 마을을, 이그나티우스는 대도시를 사랑한다네.

위로부터의 포교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만 놓고 볼 때에는 그렇다. 어쨌든, 잠정적으로 결론으로 내리자면, 예수회의 “위로부터의 포교”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만 본다면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잠시 주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예수회의 포교 노력 자체가 허사로 끝난 것은 아닐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운명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럼, 상황하지만, 그 뒷이야기를 마저 하겠다. 다시! 위의 지도로 되돌아가자. 거기에 그려진 “Corea” 부분에는 십자가 표시가 없다. 물론, 당시 조선에는 천주교 성당이 없었다.²⁵⁾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러나 이후 전개될 조선의 서양 종교와 서양 학문의 수용과 관련해서, 작지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 소헌 세자가 조선으로 귀국하면서 북경의 아담 샬에게 소헌 세자는 “코레아 환관” 한 명을 북경에 남겨두었다는 사실이 기억날 것이다. 세자는 당시 아담 샬 신부로부터 서양 학문과 서양 종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돌아오라고 명한다. 이 내시는 이미 그 때 당시에 천주교의 세례를 받았다. 물론, 조일 전쟁 중에 일본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천주교 신자가 된 조선인들이 많다.²⁶⁾ 이들을 제외한다면, 따라서 조선인 가운데에서 중국에서 세례를 받은 최초의 이가 이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조선인은 아주 오랫동안 북경에 남아서 아담 샬 신부를 보필하고, 그로부터 서양 학문과 서양 종교를 배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담 샬 신부에게 죽음이 임박하자, 신부가 자신의 생애와 활동을 정리하기 위해 내시를 불러 기억을 되살려내었다는 데에서 확인된다. “코레아 환관”의

25) 윤민구, 『한국 천주교회의 기원』, 「제8장 한국 천주교회의 임지왜란 기원설과 그 비판」, 339-487. 윤민구 신부는 한국 천주교의 기원 문제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지왜란” 기원설을 단호하게 반박한다. 이 반박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아직 검토되지 않는 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De rebus Iaponicis, Indicis et Pervanis epistolae recentiores*, 1605(서울대 중앙도서관 귀중본: H200 43)이 대표적이다.

26) *De rebus Iaponicis, Indicis et Pervanis epistolae recentiores* (1605), 439-440.

기억력이 매우 비상했기 때문이라 한다.

(HRC, p.296) Tribus itaque antequam moreretur mensibus, vocato ad se integerrimae memoriae Eunucho Coreano.

(296쪽) 아담 살 신부가 죽기 세 달 전에, 기억이 비상한 코레아 환관을 불렀다.

아담 살 신부가 죽은 해는 1669년이다. 그렇다면, 이 코레아 환관은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조선으로 귀국하지 않고 아담 살 신부를 보좌했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아마도 아담 살 신부가 몹시 아끼었던 제자였을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를 불렀다는 사실은 신부가 이 “코레아 환관”을 늘 대동하고 다녔다는 것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서학 수용과 관련해서 이 환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을 텐데, 우선 이 환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조선의 관료들과 어떤 지식인들과 교류를 했는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현 세자가 심양(瀋陽)으로 데리고 간 약 300명에 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실은 이후 전개될 북학파와 실학파의 등장에 직접적인 매개 역할을 담당한 이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현 세자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이제는 달리 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많은 역사학자들은 소현 세자를 비운의 왕세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는 그야말로 소현 세자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시야를 소현 세자는 물론, 소현 세자가 데리고 간 집단 전체로 확대한다면, 조선의 서학 수용과 개방에 대한 논의는 다른 지평에서 새롭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앞에서 소개한 “코레아 환관”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순치제가 서양 종교와 서양 학문을 분리해서 과학과 학문을 받아들여야 했다면, (아마도 19세기부터 중국 지식인들에 의해 주창된 소위 중체서용(中體西用)론의 효시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코레아인들”은 그 시작이 조금 달랐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요컨대, 소현과 같은 세자가 직접 나서서, 물론 비극적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서양 학문과 사상, 그런데, 정신 문명의 제도적 실체인 서양 종교인 “천주의 법”을 마음 속 깊이 받아들이려 했다는 점이 17세기 조선의 서양 문명 수용 역사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라 하겠다.²⁷⁾

27) 복학파가 서양 과학을 받아들이려 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기에 이 글에서는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였다. 또한, 한 심사자 선생님의 “설령 소현세자에게 천주교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명사적인 의의를 지니기 위해서는 왜 천주교를 지지하는가에 대한 그 자신의 사상적 논의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두 방향에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소현 세자의 『동국일기』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용된 서학, 특히 천주교와 유교의 사상적 유사성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1. 1차 문헌

Adam Schall et alii, Historica relatio de ortu et progressu fidei orthodoxae in regno Chinensi per missionarios Societatis Jesu ab anno 1581 usque ad annum 1669, Intorcetta(ed., 1672), Augustus Hanckwitz.(서울대 중앙도서관 귀중본: C510 101).

Christian Wolff(1726), *Oratio de Sinarum philosophia Practica: Rede über die Praktische Philosophie der Chinesen*, übers. v. Michael Albrecht(1988), Hamburg.

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sive Scientia Sinensis, Couplet et alii (transs., 1687.), Paris.

De rebus Iaponicis, Indicis et Pervanis epistolae recentiores (1605).(서울대 중앙도서관 귀중본: H 200 43).

이익(李瀾), 『성호사설(星湖僊說)』, 제4권 육약한조(陸若漢條).

山口正之(1967), 『朝鮮西敎史: 朝鮮キリスト敎の文化史的研究』, 雄山閣.

2. 2차 문헌

김상근(2010),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흥성사.

노대환(1997), 『조선 후기의 서학유입과 서기수용론』, 『진단학보』 83집.

데이비드 E 먼젤로, 이향만, 장동진, 정인재 역(2009), 『진기한 나라, 중국』, 나남출판사.

윤민구(2002), 『한국 천주교회의 임지왜란 기원설과 그 비판』, 『한국 천주교회의 기원』, 국학자료원.

Roman Malek, S.V.D. (ed.)(1998), “Western Learning” and Christianity in China. The Contribution and Impact of Johann Adam Schall von Bell (1592-1666), in *Monumenta Serica Monograph Series Vol. XXXV/1-2*.

L. Pfister(1932), *Notices Biographiques et Bibliographiques sur les Jesuites de L'ancienne Mission de Chine 1552~1773*.

【Abstract】

HRC (Historica relatio de ortu et progressu fidei orthodoxae in regno Chinensi per missionarios Societatis Jesu ab anno 1581 usque ad annum 1669) is a documentary which was made in memoriam of Jesuit missionary Adam Schall. This contains many dialogues which took places between Shunzhi Emperor of *Qing dynasty* with Adam Schall, and also two letters of *Sohyun Prince* of Chosun dynasty. In *HRC*, these are some noteworthy differences between *Shunzhi Emperor* and *Sohyun Prince*, in terms of their perception of Jesuit missionary Adam Schall and their stance on Christianity. This paper clarifies these differences by comparison. First, Adam Shall was a true friend and even a brother for *Sohyun Prince*, while he was regarded as a good subject for *Shunzhi Emperor*. Second, as for Christianity, *Shunzhi Emperor* regarded it as a doctrine for moral cultivation and self-improvement, similar to Confucianism and Buddhism. However, according to Adam Schall, *Sohyun Prince* accepted it as religion in the European perspective. Finally, *Shunzhi Emperor* attached greater importance to European science than to Christianity. Meanwhile, according to Schall, *Sohyun Prince* took Christianity more seriously than *Shunzhi Emperor*. Even based on this brief comparison, it can be concluded that *HRC* is a very significant text for studying the interrelated history of the East and West. In this regard, *HRC* requires urgently a new critical edition for a reliable scholarship.

【Keywords】 Catholic Church, Jesuits, *historica Relatio*, Adam Schall, Shunzhi Emperor, Sohyun Prince, *lex divina*

논문 투고일: 2012. 02. 02

심사 완료일: 2012. 04. 05

게재 확정일: 2012. 04. 12